

02/07/2021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유다 에후다
הַלְלוּהוּ
PRAISED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창 44:30-34

“³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³¹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³²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³³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³⁴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 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1부 중보기도 : 목회1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마리아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1.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전과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2.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하고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3.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죄악 앞에 가슴을 찢으며 자복하게 하옵시고 천국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진실되며 정결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4.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임재의 시간, 기쁨과 감격의 시간, 천국을 맞보며 참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곤고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중보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열납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시 108:5]

1.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 찬양팀, 반주자, 악기담당자, 율동팀, 그리고 음향팀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창석목사님, 김동철목사님, 김대규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김은호장로님, 남양호장로님, 송금관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 4:12)

1.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2.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3. 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하옵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4.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창 44:30-34)’의 말씀을 통해, 부끄러웠던 유다의 인생을 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5. 성도들의 영혼을 소성케, 믿음을 견고케, 생활을 정결케, 구원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6.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큰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째 새벽기도 (4/10/2021 까지)

성도양육과정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흑암의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3. 말씀을 통해, 도전 받고 유다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세속적인 옷을 벗고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거룩한 소명 앞에 순종하며 겸손과 섬김의 영으로 무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5.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하나되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날마다 뒤에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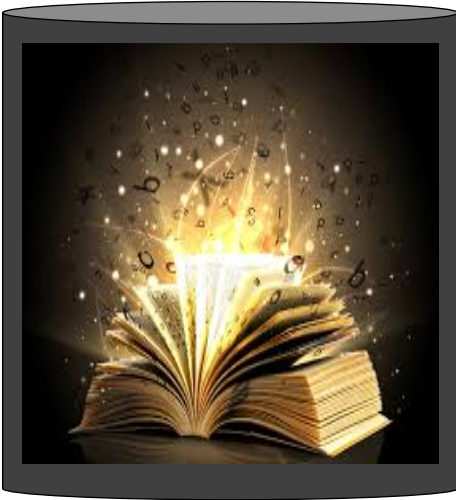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역대상 29:12]

1.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2.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생수로 채우시고 그 생애를 복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4.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경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아멘!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한 주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살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2.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가정예배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예배적 삶이 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4. 은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2.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록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3. 모든 가정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4.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셀모임도 활성화 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1. COVID-19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 힘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2.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4. '채찍에 맞으므로 니움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케 되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5. Jesus' Light 성도들이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을 성령충만하게 하옵시고 올 한 해도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3. 선교 현지의 핍박과 박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선교사님들의 건강, 재정, 가정,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을 붙들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GMI 모든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건축중이신 선교사님	향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희진 선교사님(C 국) 종교비자가 나왔습니다. 하늘 길이 열려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마이클 강 선교사님(T 국) 기독교를 위한 펀드의 유입이 차단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탄압 속에도 복음이 확장되도록 • 정희중 선교사님(T 국) 비자 신청을 다시 합니다. 행동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시비르스크)- 성전건축 • 김정훈 선교사님 (B 국) - 성전 건축 : 골조 공사 마무리 되었고 외벽/ 내부 공사 및 안전을 위해 • 이광섭 선교사님 (필리핀) 기쁨의 교회 건축 마무리) • 김득원 건축선교사님 (태국 선교센터 건축) • 최운섭 선교사님 비타교회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예신 선교사님 (A 국)-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훈 3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혜영 선교사님(T 국)- 암이 왼쪽 영치뻘로 전이 됨: 깨끗이 치유되도록/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 정광수 선교사님 식도암 • 박경희 선교사님(n 국) 4 번째 유방암 수술의 쾌유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로시스크) 허리, 목, 디스크 치료 중이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창모 선교사님 (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Covid-19 바이러스로 투병 중인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이 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p>



미국을 위한 기도

1.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판단력과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 수정헌법 1 조에 의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정부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생명들(태아 생명 포함)을 소중히 여기도록
- 나라를 진리와 사랑과 용서로 잘 통합 할 수있도록

2. COVID-19 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코비드-19 로부터 나라를 구해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3.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4. 미국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부흥이 임함으로 전국적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5. 연방의회가 국민을 위한 유익한 법을 만들고, 연방법원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편에 서고, 헌법에 입각해 판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레미야 목사의 '성경 프로그램', 히스토리 채널서 최초로 방영 : 미국 교회 원로이자 유명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데이비드 에레미야 목사(David Jeremiah)가 진행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종교 분야로는 최초로 '히스토리 채널(History Channel)'에 정규 편성된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에레미야 목사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오전 6시 30분에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방영되며, 성경적 가르침과 특별 뮤지컬, 신앙 중심의 영상 제작물을 송출할 계획이다.

미국 백신접종 가속위해 군인 1천명 투입...내주엔 등교지침 발표: 미국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천여명의 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연방을 향한 기도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기독교인 박해 위협 직면
-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무슬림 공격으로 지난해 3600 명 사망
- 아프리카 코로나 치명률 2.6%, 세계 평균보다 높아
- 충남도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인도, 성인의 21%가 코로나 감염으로 추산
- 北, 갑작스런 코로나 봉쇄령에 주민들 추위와 굶주림 직면
- 美 국무부, 신장 위구르 여성 성폭행 심각...국제 감시단 조사 촉구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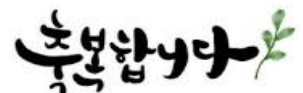
2 월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범사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온 가족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 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코로나 펜데믹 재앙을 거두어주셔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하 7:13-14)

금년 2 월은 참으로 특이한 달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정보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모두 4 주간 4 개씩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되려면 892 년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892 년 만에 만들어진 요일 배열이라는 것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익숙한 생활인데 2 월은 빈틈없이 딱 찬 느낌입니다. 다른 달에 비해 2 월은 28 일로 가장 작은 날수이기에 더욱 시간을 간요하게 사용하며 보람된 삶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 월의 February 는 “정화하는 축제”란 뜻의 라틴어 Feurura 에서 온 말입니다. 2 월은 깨끗하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점점 더욱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 성결해야 할 때입니다. 펜데믹으로 요즘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직장생활이나 물건 구입부터 학교 수업도 교회 예배까지 온라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의 역할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많은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단 사설을 잘 포장하여 미혹시키는 말씀의 영상들, 교회와 주의 종들을 음해하는 영상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악플들, 혼란스럽게 공격해올 때 당황하였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 되고 정직하게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반드시 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악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섭게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더욱 역사하는 때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깨끗해진 심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다시 들어오지 못 하는 것처럼 악한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양육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말씀훈련을 하며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기도하면서 모든 예배에 성공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어려움과 역경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서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들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자네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흑인 노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흑인 노예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주인 어른이 총을 쏘아서 꿩 두 마리를 맞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마리는 완전히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완전히 죽지 않아서 날개를 펴려이면서 달아나려고 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어느 꿩부터 먼저 잡아야 하겠습니까?” 주인은 가소로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 멍청이 같은 사람아! 그야 물론 아직 살아서 날아가려는 꿩을 먼저 잡아야지.” 그 때 그 흑인 노예가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인 어른! 주인 어른은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손 댈 필요가 없지마는 나는 살아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붙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누구입니까? 그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역경을 잠재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잠재울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에는 큰 역경과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오라비가 죽는다는 폭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룻길을 일부러 걸어 오셔서 죽은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상을 당한 가정이 많이 있었겠는데 오직 마리아의 가정만이 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바로 주님의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님들이 되어 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잠재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
김광신 목사 드림.

사랑합니다

